

사무엘의역사에서볼수있는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과와 거룩한 경고

5/23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11, 27-28

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27 내가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그 간구를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28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일생 동안 여호와께 빌려드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민 6:2-4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고자 할 때에는

3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 그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4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시 73:25-26

25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26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뉘이십니다.

벤전 5:5-6

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움직이신 결과는 하나님의 갈망의 성취를 위해 절대적인 이기는 나실인을 산출한 것이었다. 나실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나실인은 결코 머리를 밀거나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다. 성경에서 긴 머리는 권위, 또는 머리의 권위를 상징한다. 나실인이 머리털을 길게 하는 것은 마치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머리로 삼듯이, 그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긴다는 표시이다. 이와 같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머리와 권위로 삼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나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기도했다(삼상 1:11).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나실인은 ...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사람이다. 사무엘은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어머니에 의해 헌신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스타디, 2 장, 2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즉 아마 두세 살이었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려고 그를 여호와께 드렸다(삼상 1:21-28, 11). 사무엘기상 2장 1 절부터 10 절까지에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드린 기도가 있다.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녀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 장, 22-23 쪽)

주님은 민수기 6 장에서 모세에게 하나의 보완책을 제시하셨다. 그 보완책은 ... 제사장의 타락에 대한 그분의 특별한 규정이었다. 주님은 레위 지파에서 오직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으로 임명되도록 정하셨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의 왕국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주님은 레위인들을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시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직 아론 집안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론의 집안은 결국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때에 이르러 완전히 철저히 타락하는 정도에 이르렀다(삼상 2:12-17).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셨다. 그분은 아론 집안을 제사장이 되도록 정하시는 것에 더하여, 민수기 6 장에 있는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보완책을 마련해 두셨다. 이 보완책은 정해진 제사장들에게 부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아론 집안이 타락하게 되자 이 보완책이 실지로 효력을 발휘하였다.

나실인의 원칙은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그것은 임명되거나 정해지거나 더욱이 주님께 선택받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자원하여 헌신함에 의한 것이다. 제사장 직분에 관한 한, 엘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 빌려드렸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님께 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주님은 그분의 행정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시므로, 누군가가 자원하여 자신을 주님께 빌려드릴 필요가 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대상 6:33-38),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다(삼상 1:1-2). 그는 아론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헌신되고, 분별되고, 자신을 빌려드립니다으로써 제사장이 되었다. 사무엘은 정문으로 들어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와 제사장이 되었다. 그는 임명이나 출생에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민수기 6 장에 규정된 보완책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나실인의 원칙에 의해서 그는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이 되어 정해진 제사장을 대치하였다.(진리 공과, 1 단계, 1 권, 10 과, 166-16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1 단계, 1 권, 10 과

5/24 화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3:10

10 여호와께서 오셔서 곁에 서서서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 50:4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엡 5:26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엡 5:27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 2: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13:9

9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출 21:5-6

5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저의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6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요 17:17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가 8 장 13 절은 이렇게 말한다. “동산들에 거하시는 이여, / 나의 벗들이 당신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 나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뜻은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듣는다는 것이다. 그 연인과 함께 주님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처리를 받았으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안다. … 그들은 그들의 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그들의 일이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들으려고 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계시나 빛이나 지식이 없다. 믿는 이의 일생은 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듣기를 기다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유일하게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를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워치만 니 전집,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71-17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은 기울어 가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마지막 제사장인 나이 든 엘리의 보호 아래서 자랐다(삼상 1:25).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은 기울어 가던 제사장 직분을 사무엘로 대치하고자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엘리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어떤 공과들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 사무엘은 엘리의 상황에서 본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으며, 이것은 장래에 사무엘에게 지속적인 경고가 되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서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배웠다(삼상 2:11 하). 사무엘은 배우는 동안 아론의 계통에 따른 타락한 제사장 직분이 변질되는 것을 목격하였다(삼상 2:12-17, 22-25). 이것은 사무엘이 이후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내내 그에게 지속적인 경고가 되었다.

사무엘은 엘리의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깨달았다(삼상 2:27-36, 3:4-18, 4:1-22). 우리는 하나님께서 …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의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느라 매우 바쁘시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리실 엄중한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였다(삼상 2:27-36).

둘째,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 엄중한 심판을 확증하였다(삼상 3:4-18). 나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을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엘리에게 전하신 목적이 이 어린 제사장 소년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심어 주시려는 것이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

사무엘은 이 모든 비극을 목격했으며, 그것들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내 그에게 경고하고 그를 상기시키는 공과들이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사무엘을 연로한 엘리의 보호 아래 두신 것은 매우 유익하였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부정적인 면에서 다른 것들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의 도움으로 그는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계속 순수한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다. 사무엘은 죽기 직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은 적이 없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었다 (삼상 12:3-4).

사무엘이 엘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하나님은 사무엘을 매우 섬세하게 가르치셨으며, 그를 그분의 합당한 제사장으로 건축하시고 세우셨다.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판결하는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신언하는 신언자가 되었으며, 왕의 직분을 이끌어 오는 사람이 되었다. 이 왕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졌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교회인 왕국이 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 장, 25-28, 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7 장; 위트니스 리 소책자, 12 권, 나실인의 원칙

5/25 수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3:21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여호와와 실로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

삼상 2:35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히 2:17-18

17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18 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마 16:24-26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고후 3:16-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하였다. 그는 행동과 생활과 일뿐만 아니라 그의 온 존재와 인격도 하나님과 일치했다. 사무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곧 사무엘이 고려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에게는 다른 사상이나 고려나 생각이 없었다. 사무엘의 생활과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은 결코 반역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혁명을 통해 시대를 전환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를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성한 계시에 속한 일이었다. 그는 완전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합당한 계시의 방식으로 처신하고 일하며 사역하고 섬겼다. ...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본이며 복제였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는 결코 반역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5 장, 41 쪽, 6 장, 53-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은 아론의 계통에 따른 진부한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종결하였다. 그는 아론의 집안을 거슬러 반역하거나 아론의 집안에 속한 어떤 것도 강탈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혁명이 없었고, 오직

계시만 있을 뿐이었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은 환경을 안배하시어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셨다. 회복 안에서 주님은 결코 어떤 종류의 반역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반역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많은 변화와 조정과 개선을 이끌어 오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신을 관심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라.”(삼상 9:16) 라고 말씀하셨다. 사울과 그의 종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을 위해 무언가를 얻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 왜 그렇게 유용했는지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전혀 관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는 어떤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나실인, 곧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꺼이 갔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했다. 그는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이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무엘은 매우 인간적이며 또 인간적인 관념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관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관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민이 전부였다. 그는 하나님을 관심했고, 그분의 권익과 유익을 관심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높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지적했다. ...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성격을 지녔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과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왕국만을 위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높은 성격을 지녔을 뿐 아니라 나실인의 높은 서원을 한 사람이었다.

비록 사무엘이 그의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익을 주의했고 시대를 전환했다. 구약에 따르면,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권익을 위하는 면에서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놓인다(렘 15:1).(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5 장, 41-42 쪽, 7 장, 57-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23 권, 노래 중의 노래, 3 단락

5/26 목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3:19-20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20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와 신언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삼상 3:1-2

1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당시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다.

2 하루는 엘리가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볼 수 없던 때였다.

삼상 10:25

25 곧이어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국의 법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돌려보내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출 28:30

30 너는 판결 가슴받이 안에 우림과 둠뭇을 넣어 두어, 아론이 여호와 앞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들이 아론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판결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민 27:21

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물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의 말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행 3:24

24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모든 신언자가 말한 것도 다 이때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행 13:20

20 그 후 신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사백오십 년 동안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히 11:32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신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낡은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대처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분의 말씀을 말해 내도록 하셨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 중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착용한 가슴받이와 우림과 둠뭇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였다. 제사장 직분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말할 살아 있는 사람인 신언자를 일으키셔야 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일이다. ...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신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르면 신언자 직분을 세운 최초의 신언자는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행정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의 시대에서 왕의 직분과 함께하는 신언자

직분의 시대로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5 장, 43-44 쪽, 6 장, 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합당한 신언자 직분은 항상 왕의 직분에 조력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공과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는 장로들에게 왕의 직분이 있다. 만일 여러분이 장로가 아닌데 교회 안에서 그다지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한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에게서 말씀을 받는 신언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어떤 말씀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신언할 말씀을 주신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장로들에게 가서 신언해야 한다. 자신에게 왕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장로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에게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형제의 신언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생활의 합당한 상황이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공급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분의 백성에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이상을 가진 신언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이상이 결핍된 상황을 다루는 합당한 길은 모를 수 있다. 교회생활에서의 문제들은 종종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야기된다.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이유로, 신약은 장로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딤후 3:2, 5:17)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과, 성도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히 13:7, 벰전 5:1-3) 곧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배우라고 장로들에게 명령한다. 만일 장로들이 성도들을 가르친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가르친 것을 앞장서서 실행해야만 한다. 이것이 앞장섬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제사장 직분이 합당했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본이 되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것들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지시한 것들을 직접 수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모든 것을 앞장서서 수행했다. 예를 들어, 제사장들은 앞장서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고, 또한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돌았다. ... 오늘날 이것이 바로 교회를 돌보는 합당한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돌보는 합당한 방식은 바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앞장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린 나실인이었던 사무엘이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기울어 가는 제사장직분을 대치하게 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셔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 (삼상 2:35).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이 올려진 신언자 직분을 담당할 신언자로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선민에게 말씀을 공급하셨고 (삼상 3:20-21),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선민에게 권위를 행사하셨다 (7:15-17).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사사 직분을 종결하였고,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이끌어왔다. 이 왕의 직분은 높이 올려진 신언자 직분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러한 신언자 직분 안에서 사무엘은 첫 번째 신언자로 세워졌다(행 3:24, 13:20, 히 11:32). ... 낡은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높이 올려진 신언자 직분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으로 대치하셨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6 장, 52-5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95, 54, 59

5/27 금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7:3-4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 두며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4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삼상 3:3-4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출 33:11

11 여호와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막을 떠나지 않았다.

민 12:8

8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고, 분명히 말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말하지 않거니와 그는 나 여호와와 모습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거슬러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시 27:4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고후 3:12, 16-18

12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일으켜졌을 때(삼상 9:3-10:27), 사무엘은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했다. ...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대표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행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행동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분께는 어떤 대표가 필요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신언자와 제사장과 사사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행정가였다.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무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

사무엘은 ...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였다. 우리는 사무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사무엘이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대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7 장, 56 쪽, 5 장, 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 하시도록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한 나실인으로서 사역하였다. 사무엘은 자원자인 그러한 나실인으로서, 임명받아 하나님을 섬기거나 규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대신했다(삼상 1:11, 28 상). 나실인의 서원은 그의 어머니가 시작했고, 사무엘이 완성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사역했다. ... 사무엘은 출생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으키신 제사장이었다. ... 사무엘기상 2 장 35 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으로 행동하며 심지어 이 땅에 있는 신성한 통치를 위하여 왕들을 임명하고 세우기까지 하였음을 보여 준다. 다윗은 그에 의해 임명받고 기름부음 받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황폐하게 하려고 원수가 하고 있던 일에 관해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륜과 환경적인 상황에 관하여 상당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서 애곡했으며, 기꺼이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대치했을 때,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다(삼상 10:1, 16:1, 13).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무엘은 줄곧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하면서(2:35) 왕을 감독하고 왕이 행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사무엘이 왕보다 더욱 위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오랫동안 사무엘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러한 정도까지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수행될 때, 그들은 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번영과 행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나는 특히 어린 성도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번영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오히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신언자로서 사역하고 섬겼다.

구약에서 신성한 계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신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으면, 우주는 공허할 것이다. 오늘날 주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의 최초의 신언은 엘리에게 말한 것이었다(삼상 3:1-18).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울어져 가던 제사장 직분을 지닌 나이 든 엘리에게 말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엘리를 통해 나와야 했지만, 그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하실 수 없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훨씬 더 젊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5 장, 40-4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1 단계, 1 권, 10 과

5/28 토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7:15

15 사무엘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삼상 12:23

23 물론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삼상 12:20-22, 24

20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다만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21 여러분은 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돌아선다면 헛된 우상들을 따르게 될 것인데,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유익하게도 못하고 견져 내 주지도 못합니다.

22 여호와와 그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24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참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큰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상 8:44-45, 48-49

44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5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4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혼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거든, 49 주님의 거처인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사무엘은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하지 않았던 때에 신언하였다(삼상 3:1 하). ... 사무엘은 쇠하여 가던 엘리와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볼 수 없던 때에 처음으로 신언하였다(2 절).

더 나아가, 사무엘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에 신언하기 시작했다(삼상 3:3).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멈추었지만, 여전히 어떤 빛이 있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사역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겼고, 신언자는 하나님을 위해 말했으며, 사사는 하나님의 통치 행정을 수행했다.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과 신언자 직분과 사사 직분을 지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곧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서 있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과 신언자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로 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정상적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5 장, 44-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은 백성을 판결하던 낡고 진부한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도록 사사로 세워졌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는 두 가지 일을 포함하므로, 사사 직분은 사실상 제사장 직분에 포함된다. 그러나 낡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제사장과 새로운 신언자와 새로운 사사가 되게 하셨다.

사무엘을 통하여, 또한 그의 제사장 직분과 신언자 직분과 사사 직분이라는 삼중 책임을 통하여 좋은 질서가 산출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패배당하고 굴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되게 하셨다.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조상인 다윗을 이끌어 왔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러한 일을 하는 명예가 사무엘에게 주어졌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좋은 땅이시며, 지금 우리는 그분을 경작하고 그분께 수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교회인 그분의 몸의 구성 요소들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필요로 하셨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역했다. ...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했다(삼상 7:3-14, 8:6, 5:11 하).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길 안에 보존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이방민족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리지 않고, ‘도움의 돌’을 의미하는 에벤에셀이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기도했다. “사무엘은 돌 하나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말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삼상 7:12)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 대해 뜻하시는 갈망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왜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경륜의 성취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다(삼상

12:23).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특히,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매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세처럼 사무엘도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셨다(렘 15:1). 모세는 제사장과 신언자(신 18:15, 18)와 사사였으며,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이러한 일에서 사무엘도 동일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한 제사장과 신언자와 사사였다. 구약에서 오직 모세와 사무엘만이 제사장 직분과 신언자 직분과 사사 직분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5 장, 45-4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54년, 1권, 영문판, 418-421 쪽

2022. 5. 23 ~ 2022. 5. 27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6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7 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95
워치만 니 전집,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71-172 쪽

848. 어떤 축복 권리인가

1 어떤 축복 권리인가 나는 제사장일세
하나님의 택함 받아 귀한 직분 감당해

(후렴)

존귀한 제사장 직분 교회 건축 기초 돼
영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네.

2 주의 권위 아래에서 왕의 신분 지키고
이 직분의 직분 다해 교회 건축 이루리

3 제사장 무리인 교회 제사장 직분 다해
제사장의 체계 돼야 참된 건축 이루리

4 교회 하락 황폐 인해 이 직분 소홀해져
성도의 영 약한 그때 말씀 사역 힘 얻네

5 신언자가 전파하는 말씀 귀히 여기나
제사장의 기도 봉사 중히 여기지 않네

6 주님 내가 균형 갖고 말씀 기도 중시해
가르침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7 봉사하며 기도해야 성도의 영 섞여져
말씀 위에 기도 더해 교회 건축 이루리

악보 / 음악 (한 612 / 영 848)
<http://khymnal.org>

5/29 주일

아침의 누림

신 18:15, 18

15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 한가운데서, 곧 그대의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신언자 한 분을 그대를 위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8 나는 그들의 형제들 한가운데서 너와 같은 신언자 한 사람을 그들을 위해 세울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넣어 줄 것이며,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렘 15:1

1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혼은 이 백성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여라.

렘 6:10

10 “제가 누구에게 말하며 증언해야 그들이 듣겠습니까? 참으로,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은 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말씀을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출 21:5-6

5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저의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6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사 50:4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마 11:15

15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계 1:3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계 2: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